

전북신보, “전북 경제 활력 견인하겠다”

2026년 1조4500억원 보증공급… 전국적 감소세 속 ‘3년 연속 성장’ 독보적 성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내년도 보증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지역 경제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전북신보는 지난 1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성과를 발표하는 한편, 2026년 총 1조 4,500억 원 규모의 보증공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 대비 20.8% 늘어난 수치로, 내수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재단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보증공급을 확대하며 전국 17개 지방보증재단 가운데서도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전국적으로 보증 공급이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북신보는 올해 10월 기준 전

국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인 25.7%를 기록하며 안정적 공급 기반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체·운행 매칭 방식의 ‘희망리드림 특례보증’, 대표적 성공 사례로 손꼽힌다.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해 14개 시·군 중 10개 지역이 참여했으며, 지금까지 총 299억 원의 출연금으로 4,961억 원 규모의 보증을 창출했다.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공동 조성한 종잣돈을 기반으로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이 높은 효율을 보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모델 도입을 검토하는 등 파급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민생 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은 가계와 접포의 금융 부담 완화에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22,827건, 4,450억 원 규모의 대환 및 상환유예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금융비용 절감 효과는 163억 원, 대비변제 감소 효과는 202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재도의 성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소상공인 전환보증’ 정책의 모형으로 채택되며 전국 단위 정책으로 확산되는 결실을 맺었다.

폐업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도 강화됐다.

전북신보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희망리더링 교육’을 총 6회 운영해 재창업·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준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교육 수료자는 특례보증을 통해 추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5

년 10월 기준 관련 보증 규모는 전년 대비 107.8% 증가했다. 아울러 재단은 금융지원과 컨설팅·상담·교육 등 비금융 지원을 결합한 양방향 재기지원 체계를 구축해 성실 실패자에게는 재무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조정과 소각을 제공하고, 재창업 단계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기업 생애주기별 진단을 기반으로 한 ‘위드온 생존 컨설팅’은 최근 3년 간 참여 기업의 생존율을 87.6%까지 끌어올리며 효과가 입증됐다. 이는 OECD 국가 창업기업 생존율보다 30.4%p, 전북자치도 창업기업 대비 36.6%p 높은 수준으로, 컨설팅 수진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오상근 기자



건협 전북도회, ‘2025년 실질 자본금 · 연말결산 교육’ 개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난 19일 전주 간설향관 6층 대강당에서 회원사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연말결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강화되는 정부의 건설업 실태조사에 회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마련됐다. 협회는 전 대한건설협회 자문회계시인 이종현 회계사가 조정해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산정 방식 △건설업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주요 쟁점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풍부한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강연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회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소재질 회장은 “국토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해마다 강화되는 만큼, 결산 시즌을 앞두고 회원사들이 실질자본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담회

여성기업 발전 위한 논의 진행

전주시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가 지역 여성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지난 19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여성경제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해마다 높아지는 여성기업의 경제적·사회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전주시 내 여성기업들이 공동적으로 겪고 있는 경영상의 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다. 특히 지역 인재 부족으로 인한 채용난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수의계약 참여의 어려움과 판로 확대의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엿보였다.

이에 대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여성기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라고 강조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디지털융합센터, 지역 홀로그램 산업 기술 · 비즈니스 컨퍼런스 성료

산 · 학 · 연 100여명 참여… 기술 실증 · 사업화 성과 공유하며 산업 생태계 확장 전망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지털융합센터가 20일 익산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지역 가상융합산업 홀로그램 기술·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 관계 기관 및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 홀로그램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사업화 전략을 공유했다.

‘홀로그램기술 사업화 실증지원 사업’은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돋는 국가·지자체 연계 프로젝트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약 200억 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홀로그램 기술의 사업화 촉진, 서비스 확산,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기술교류회에서는 △홀로그램 제품 제작 지원 △현장 실증 지원 △해외 진출 지원 △호리홀로그램페스티벌 연계 프로그램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등 2025년도 주요 추진 성과가 소개됐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지역 홀로그램 산업의 미래 방향을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해양수산기업 성장 전주기 지원

바이오진흥원, 창업부터 수출까지 ‘전북형 모델’ 구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해양창투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해양수산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해양창투센터는 지난해 정부 공통지표 7개 중 6개를 초과 달성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고, 올해 역시 창업 지원과 국내외 시장 개척에서 기초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창투센터는 올해 초 도내 해양수산 관련 기업과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설명회를 열고 창업기업 지원 수혜를 확대하며 사업 기반 강화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매출성장도, 신규 고용 창출, 창업기업 유지를 등 다수 기업에서 목표를 넘어서고, 수혜기업 만족도는 4.85점을 기록하며 센터 운영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초기 창업기업이 성장단계 전반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북형 해양수산 창업 생태계’가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해양창투센터는 기존 수산물 중심의 단순 제품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간편식(HMR) △반려

/오상근 기자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

전북자치도 · 전건협 전북도회, 포스코이엔씨 본사 합동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가 도내 대형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자재 사용률 제고를 위해 지난 19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포스코이엔씨 본사를 합동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양 기관은 도내 대형 건설사업 하도급을 60% 이상, 지역자재 및 장비·인력 사용률 80% 이상을 적극 건의했다. 아울러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협력업체 등록 확대를 요청했으며, 지역업체 활용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도·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정책과 건설수



과를 낳는다.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여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도내 업체에 대한 배려와 안배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포스코이엔씨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 사업에 도와 협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오상근 기자

도로 ·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안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공고

사업명: 삼계~오수 지방도 확포장공사

편 입 토지 조서

사업명: 삼계~오수 지방도 확포장공사

연번	소재지	지 번	지적	면적(a)	면적 공부 면적	면적 연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0,584											
1	남원시 서면 서도리	771-1	천	24,447.0	296.0	국	국토교통부				
2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7	도	215.0	17.0	국	기획재정부				
3	남원시 서면 서도리	786-1	천	188.0	131.0	김·현	전주시 완산구 날로동				
4	남원시 서면 서도리	786-2	천	158.0	129.0	김·현	전주시 완산구 날로동				
5	남원시 서면 서도리	786-6	임	20.0	20.0	국	기획재정부				
6	남원시 서면 서도리	786-5	임	57.0	34.0	이·준	인천광역시 서구 수동로 22, 드림타운 아울렛(인천광역시 서구 수동로 22, 드림타운 아울렛)				
7	남원시 서면 서도리	786-7	임	70.0	37.0	국	기획재정부				
8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	구	298.0	204.0	국	국토교통부				
9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17	과	190.0	190.0	국	국토교통부				
10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26	도	54.0	54.0	국	남원시				
11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2	도	50.0	50.0	국	남원시				
12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27	도	3.0	3.0	국	남원시				
13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1	천	1,061.0	344.0	국	국토교통부				
14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4-5	천	9.0	9.0	국	국토교통부				
15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6-3	천	16.0	16.0	임·자	전라북도 남원시 서면				
16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6-7	천	137.0	137.0	이·조	전라북도 군산시 육모면				
17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6-8	도	201.0	201.0	국	남원시				
18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7-2	도	111.0	101.0	국	남원시				
19	남원시 서면 서도리	79									